

2011년 10월호
(통권 214호)

해나리

꿈과 사랑을 가꾸는 목5동 성가정 성당



해는 태양(陽)·나리는 내(川)의 옛말로, 해나리는 하느님의 빛이 햇빛처럼 내리는 우리 교을 양천을 의미합니다.

위령 성월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이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 기도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 아멘.

예수 그리스도 | 오른손으로는 머리 좌우에 쓰여 있는 희랍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자를 형상화 하신 강복을 주고 계신다. 오늘날 동방교회의 모든 성직자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강복을 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이콘 외에도 성직자인 성인들 즉 성 니콜라오나 성 바실리오 등의 이콘에서도 동일하게 묘사된다. 왼손으로는 복음서를 들고 계시며 모든 말씀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다. 목판에 에그 템페라, 80 x 180

(표지 이콘 설명)

한눈에 보기

여는 페이지	02	위령 성월
해나리 열어보기	03	내용 한눈에 보기
연재합니다	04	날마다 생각한 하느님(25) ·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
전례 상식	07	미사 때 읽는 성서 구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이영춘 세례자 요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08	찬미 예수님 · 이재학 예로니모 신부님
특집	12	세례성사의 기쁨 · 박순희 데레사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 신혜정 소피아
수험생 기도모임	14	두 번째 편지 · 최미양 세실리아
글마당	16	마카오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 최동준 보나벤투라 20 주님과 함께 하는 호호 · 이분필 마리안나 22 순교자 성월 · 최동준 보나벤투라
현장탐방	24	가톨릭성서모임 요한반 현장탐방 26 초등부 복사단 파이팅 · 한정훈 율리아노 28 초등부 운동회를 마치고 · 최지원 카타리나 30 중고등부 행사 십야를 마치고 · 류주연 요안나 31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무언가 · 홍성민 대철 베드로
소공동체 모임	33	7-1구역 6반 소공동체 모임 · 김진희 헬레나
사진으로 보는 본당 소식	34	
문화 교실	36	도자기 교실, 색소폰
월요음악회	38	월요음악회 사진으로 보기 39 11월 월요음악회 기획에세이 · 주세페 김동규
농산물방	40	하늘땅물뱃의 물품 소식
	41	전입교우
광고		



발행인 | 이영춘 세례자 요한 주임 신부님
 편집 | 백명애(마르가리타), 이성재(마리안나), 안신혜(가브리엘라), 이현정(소화데레사)
 사진 | 황경희(엘리사벳), 이승환(대건 안드레아)
 발행일 | 2011년 10월 (214호)
 전화 | 2644-1100 FAX 2644-9100
 E-mail | haenari0330@hanmail.net 홈페이지 www.mok5.com(한글주소/목5동성당.com)
 표지사진 |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생각한 하느님 (25)

- [신의 언어]의 저자 프랜시스 s. 콜린스의 하느님 -

조규만(바실리오) 주교님



리처드 도킨스의 [만 들어진 신]을 출간한 우리나라 출판사 김영사는 아이러니 하게도 2009년에 프랜시스 s. 콜린스의 [신의 언어 ; The Language of God]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출판하였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는 1993년 세계 6개 국 2천 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총지휘하여 2003년 역사적으로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31억 개의 유전자 암호를 모두 밝히는 게놈지도도를 완성한 과학자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저명인사들도 이 책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과학적 설명과 개인적 사색이 어우러진 콜린스의 이야기에는 지적, 영적 솔직함이 녹아 있다. 종교적 신념이 어떻게 과학적 지식과 화해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사람, 현대 과학이 종교적 신념의 심장부를 강타한다고 걱정하는 사람,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를 다룬 수준 높은 토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기 바란다.” (윌리엄, 필립스 199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신의 언어]는 세계적인 과학자의 호소력 있는

신앙고백이다. 프랜시스 콜린스는 독자들에게 믿음과 이성을 아우르는 지식의 통합을 요구한다. 그가 증명해 보이듯 믿음은 과학적 이성의 적이 아니라 완벽한 보완물이다. 인간 게놈프로젝트 총감독인 그가 들려주는 호소력 있는 개인적 증언은 어떤 이에게는 놀라움을, 어떤 이에게는 기쁨을 줄 것이다.” (케네스 밀러, 브라운 대학교 교수)

“시기적절하고 예리하다. 콜린스는 진화론을 이해하면 믿음이 방해가 되기는커녕 우주가 더 없이 독창적이고 오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폴 데이비스 제, [5의 기적 생명의 기원] 저자)

2003년 게놈프로젝트의 인간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던 날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200년 전 메리웨더 루이스가 만든 지도를 펼쳐놓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이 지도는 인류가 만든 가장 중요하고 경이로운 지도가 틀림없습니다. …… 오늘 우리는 하느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내려준 가장 신성하고 성스러운 선물에 깃든 복잡성과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는데 총지휘를 한 콜린스는 다음 몇 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지금까지

지 오직 하느님만이 알고 있던 몸의 설계도를 처음으로 우리가 직접 들여다보았다는 사실에 저는 겸허함과 경외감을 느낍니다.”

과학적 업적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과 과학자 콜린스는 ‘하느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 ‘하느님만이 알고 있는 몸의 설계도’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잘못된 일입니까? 아님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는 과학을 잘 모릅니다만. 생명 공학에 속하는 유전자 지도는 어마어마한 작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몸의 기본 세포에는 DNA가 있고, 유전자 암호는 30억 개의 유전자 정보가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 암호를 4개의 알파벳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를 1초에 하나씩 읽는다고 해도 암호 전체를 읽어내려면 밤낮 31년이 꼬박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게놈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6개국 2000여명의 과학자들이 10여년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 이루어낸 것입니다. 경제적 비용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마치 하느님을 부인하는 것이 과학자인양 하지만 실제로 1916년 생물학자, 물리학자, 수학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나, 1997년 설문조사에서나 거의 똑같이 과학자의 40%가 기도에 응답해주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날 침예하게 대답하는 것은 진화론과 창조론, 그리고 빅뱅이론과 하느님의 창조 이론을 대립시켜 과학과 종교가 마치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리처드 도킨스는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라면 마땅히 무신론자라야 한다는 논리를 펠니다.

“신앙은 증거를 평가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회피하는 가장 그럴듯한 핑계다. 신앙은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증거 부족 때문에 믿음이 된다. 증거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인 신앙은 어느 종교에서나 주요 악이다.”

자신도 처음에는 무신론자였던 프랜시스 콜린스는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당혹스러웠던 순간은 급성 편도염으로 날마다 고통에 시달리는 한 할머니가 내게 종교가 뭐냐고 물었던 때다. 나는 얼굴을 붉히며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라고 더듬거렸다. 할머니의 노골적이 놀라움은 내가 거의 26년 동안 회피해온 난처한 문제를 끄집어냈다. 나는 믿음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근거에 대해 한 번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때의 일은 며칠을 두고 나를 괴롭혔다. 나는 스스로를 과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과학자가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가? 인생에서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 처참한 깨달음이었다. 이 문제는 이제 회피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가 되었다.”

분명한 일입니다. 어떻게 과학자가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깊이 따져 보길 꺼렸던 행동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프랜시스 콜린스처럼 과학자이기 때문에 회피해온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빅뱅 이론은 창조론과 대립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창조론과 대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진화하는 세상을 창조하셨지 우리 인간처럼 고정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신 까닭입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나 선종하시어 복자가 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일찍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종교를 오류와 미신으로부터 정화시킬 수 있고, 종교는 과학을 위상숭배와 거짓 절대주의로부터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양자는 각기 타자를 보다 넓은 세계에, 양자가 그 안에서 번영할 수 있는 세계에 이끌어 들입니다.” (현대 신학과 과학과의 대화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회와 과학의 신뢰에 찬 대화의 풍성한 결실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86년, 교황청 과학원 총회에서)

프랜시스 콜린스도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엄격한 과학자가 되는 것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하느님을 믿는 것 사이에 상충되는 요소가 전혀 없다. 과학의 영역은 자연을 탐구하는 것이다. 신의 영역은 영적인 세계이며, 과학적 언어라는 수단으로는 탐색할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가슴으로, 머리로, 영혼으로 탐색해야 하며, 머리는 양쪽 영역을 끌어안을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오늘날 교회는 성서의 창조진술의 타당성과 창조자이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지지하면서 아울러 세계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물은 창조의 조건 자체에서 고유의 안정성과 진리와 선, 또 고유의 법칙과 질서를 갖추고 있으므로 인간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학문이나 기술의 각기 고유한 방법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분야의 방법론적 탐구가 참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덕규범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결코 신앙과 참으로 대립할 수 없을 것이다. 세속 사물이나 신앙의 실재는 다 똑같은 하느님에게서 그 기원을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사목현장], 36항).

이러한 새로운 인식 속에서 그리스도교는 신학과 과학이 상호의존적이며 협력적 관계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생물들의 진화를 잘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유전자에 관한 생명공학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빅뱅이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 누가 그것이 일어나게 했는지? 우리는 그 분이 하느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유전자는 바로 하느님의 언어라고 믿는 것입니다. ✚



♥ 미사 때 읽는 성서 구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예배 행위가 하느님 말씀의 선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례 안에 말씀의 전례가 들어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전례는 바로 성찬례(미사)입니다. 이 성찬례는 다시 두 개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는데,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입니다. 말씀의 전례의 중요성이 돋보이도록 교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 아래 이를 재구성했습니다.

첫째, 적어도 복음 대부분을 신자들도 주일 미사 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성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가' 해에는 마태오복음을, '나' 해에는 마르코복음을, '다' 해에는 루가복음을 읽도록 구성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연중 2주와 '나' 해 17주부터 21주에 읽도록 하여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라면 3년 안에 복음의 주요 부분을 다 경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주일 미사에서 제1독서는 구약에서, 제2독

서는 신약에서 가져오되, 구약성서는 그날 복음의 주제와 일치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신자들이 그날의 복음 내용을 더 잘 이해하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독서는 복음과 상관없이 바울로의 편지들과 야고보서를 연속적으로 읽도록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제2독서는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평일 미사를 위해서는 1년 안에 복음서를 순서대로 읽도록 배열하는 한편, 제1독서는 구약과 신약의 주요 부분을 추려내어 2년 안에 다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서 독서를 배치한 까닭은 주일 미사에 충실한 이는 3년 안에, 평일 미사에도 참여하는 이는 1년 안에 성서의 주요부분을 대함으로써 신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개인적으로도 끊임없이 성서를 가까이해야 함을 뜻한다 하겠습니까.

- 이영춘 세례자 요한 신부님 - ✚



찬미 예수님

이재학 예로니모 신부님



안녕하세요. 너무나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 제가 서품을 받고 목5동 성당을 떠난 지 아직 4년이 조금 넘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웬지 많은 세월이 흐른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먼저 목5동 본당 공동체에 주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언제나 일치하고 나누는 가운데 하느님의 현존을 세상에 증거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간직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번에 본당 공동체가 25주년을 맞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25년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오늘의 이러한 기쁨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리에 글을 올린다는 게 참 부담스럽지만, 공동체 출신의 사제들을 잊지 않고 초대해 주신 목5동 주임신부님의 관심과 배려로 이렇게 글로나마 목5동 신자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 송파구 신천동 성당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첫 본당인 은평구 응암동 본당을 거쳐서 두

번째 본당입니다. 제가 본당 사목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너무 낮부끄럽기도 하고, 딱히 드릴 말씀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목5동 본당 출신의 다른 신부님들처럼 건강하게 또 기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목5동 출신 신부님들과 같이 어릴 적부터 오랜 시간 목5동에서 지내왔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8년에 군에서 제대하고 일 년 정도 지났을 때 여동생과 함께 미사를 보다가 본당 수녀님(테레실라 수녀님)의 권고로 본당 청년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서품받을 때까지 10여 년 정도 목5동 성당에서 지낸 셈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나름 참 많은 일과 많은 추억이 목5동 성당에 대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제생활에 평생을 함께할 출신 본당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신부님이 되어 주셨던 김구희 세례자 요한 신부님을 비롯해서 좋으신 주임신부님들과 보좌신부님들의 보살핌으로, 그리고 수많은 신자 분들의 관심과 격려와 도우심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면서도 계속해서 돌아보게 되고 또 다시금 가슴에 잊지 않도록 되새기게 되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름의 힘겨웠던 시간도 있었고, 개인적인 걱정도 많았지만 그 보다는 가슴 설레고 조용히 웃음 짓게 하는 일들, 허전한 마음을 넉넉하고 포근

하게 만드는 기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들은 매 순간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목5동 성당에서 첫 미사를 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이전에 신학생으로 생활하면서 본당 선후배 신학생들과 함께 지냈던 기억들, 여러 본당 행사에 함께 했던 교사들과 청년들, 항상 웃으며 반겨주시고 격려해주시던 신자 분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하느님께서 언젠나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지만 이렇게 수많은 이들을 통해 저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또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해주셨던 그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있었음을 이제야 진정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느님께서 저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곳 신천동 본당에서도 좋으신 주임신부님과 신자 분들이 저에게 하느님의 모습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나약할 때 힘이 되어 주시고,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고, 부끄러운 것을 감싸주시는 분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이 제겐 늘 기적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강론 준비를 하다가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제는 신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몸'을 외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신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무겁게 다가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너무나 그렇지 못한 모습이 죄송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여전히 저에게 당신의 소명을 맡겨 주고 계

심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신자 분들이 오늘도 저와 함께 성전에서 미사를 드리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작게나마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세상엔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테살로니카 공동체를 향한 사도바오로의 말씀처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노고와 희망의 인내로 목5동 성당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하느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어져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서 진정으로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늘 서울 교구에서 목5동 성당이 어느 성당 못지않은 훌륭한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받은 주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부족한 인사를 마치 고자 합니다. 건강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



세례성사 예식

2011.10.8

(유아세례 11명 포함 화요일, 수요일 세례자 83명)



‘그 날 새로 신자가 된 사람은 삼 천 명이나 되었다.’

(사도 2, 41)

세례성사의 기쁨

박순희 데레사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늦은 출발이라 생각되었지만 '더 늦기 전에'라는 신념으로, 어릴 적 어렵뚫한 주일학교의 기억 속 예수님을 그리며 가고자 했던 길을 이제야 가려 나섰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교리 공부를 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 꿈틀거리며 성경을 읽고, 복음 필사를 해 보았고, 성인들의 삶도 돌아보며 그분들의 고통을 찾아도 보았습니다. 주일 미사에 참여하여 참회와 복음, 신앙고백을 통하여 마음의 평화도 빌어 보았습니다.

주신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몰랐던 마음의 가난함 속에, 믿음을 통한 기도로 나를 비우고 낮은 자세로 회개하며 사는 삶의 행복을, 깨달음으로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삶이 밝을 수만은 없는 희로애락의 엇갈림 속에서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며 어딘가의 빈 공간을 채우고 싶은, 채워야 하는 필연성의 소재를 이제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침체된 영혼의 어두운 일부를 밝은 빛에로의 희망으로 새기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아픔의 고통이 새살로 돋도록 새로운 삶으로 가꾸려 합니다.

세례를 받으며 영성체를 통하여 성체를 모시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례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지난 6개월의 과정이 이리 큰 기쁨으로 와 닿을 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끔은 힘들어 했던 순간들이 부끄러워집니다.

세례 때 우리를 밝혀준 촛불처럼, 우리의 영혼을 밝혀줄 주님의 말씀이 어떤 부딪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자리하기를 기도하며 사랑으로 참 행복을 일구는 신앙인이 되어 보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사랑합니다!!! 🙏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혜정 소피아



제가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뿌연 어둠속을 '이 어둠의 끝이 내 힘든 삶의 끝일 텐데....., 왜 이 어둠의 길은 멀기만 하지?'라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드디어 끝이라고 다다

른 곳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회색빛 계단! 좁고 가파른 손잡을 곳도 뒤돌아 설 수도 없는 계단이었어요. 전 다시 절규하며 높고 높기만 계단을 오를 수밖에 없었죠. 다 올랐다고 고통은 끝났다고 믿고 있었는데, 하늘과 맞닿은 듯한 그곳은 길도 빛도 없는 낭떠러지, 이미 계단 끝은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저 아래 작은 불빛만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더군요.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잘했어. 이제는 비우는 거야 다 내려놓는 거야.' 스스로 위로하며 눈을 감고 몸을 던졌는데 이상하리만치 몸은 가볍고 편안해졌어요.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으로 아래로 아래로....., 이윽고 저를 받아준 건 차갑고 딱딱한 땅이 아닌 바다와도 같은 큰 물이었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순간 의식을 잃었지만 이내 정신이 들어 주변을 보니, 환하고 깨끗한 도심 속의 계곡 같은 곳이 보였습니다. 계곡 양쪽의 길에는 하얀 양복을 입은 남자 분들이 오가고 있었고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이는 없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어딜까?' 궁금해 하는데 멀리서 검은 양복 입은 남자가 제게 다가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하고 물으니 "주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저와 함께 가지죠."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 간 곳은 넓은 만남의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는데 전 그곳에서 예비신자 교리공부 시간에 봉사해주셨던 카타리나님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꿈은 가톨릭 신앙인이 되기 위해 예비신자 교리공부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꿈인데요.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해서 기록해봅니다.

세례성사를 받던 날!

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가족이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것을, 살면서 한 번도 성당에 와 보지 않았기에 세례성사가 그렇게 큰 행사인 줄 몰랐습니다. 순간 '너 대단한 선택을 했구나! 그래 꿈속에서 물에 빠진 후 다시 태어났듯, 물로 세례 받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 하느님의 자녀로... 그 동안속에서 먼 길을 돌아왔구나. 새롭게 변하는 거야. 늘 혼자라고 외롭다고 두려워했던 지난날의 나, 앞으로의 삶 또한 힘들고 외롭겠지만 이제는 사람을 믿어, 상처받지 말고 기도로써 나를 지켜주시는 하느님이 계시잖아.'하고 다짐했어요.

몇 해 전, 검은 신부복을 입은 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시어 인자한 미소를 보내주셨어요. 평범하게 태어나지도 자라지도 못한 결코 만만치 않은 제 삶에, 아버지 때때로 제 꿈에 나타나시어 야단으로, 위로로, 가여움으로 길을 가르쳐주셨죠. 전 생각했어요. '하느님께서 저의 아버지 모습으로 절 지켜주시는 구나.'라고요.

제 삶 속에 기억될 또 한 분 대모님!

연고도 없는 목동에 온 것은 5년 전쯤, 저의 오너이셨던 대모님을 만나면서 이정표 없던 제 인생길에서 길이 정해졌습니다. 제가 잘못을 해도 한 번도 지적하지 않으시며, 상처 많은 제가 자존심을 다칠까봐 늘 이해와 격려로 대해주셨죠.

어려움 없이 살다 어려운 집안으로 시집을 가시어, 치매이신 시어머니를 모시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유행성 출혈열을 늦게 발견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남편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라며 기도를 드려야했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큰 따님의 심장수술도, 몇 년간 의족을 사용해야할 만큼 다리가 불편했던 아드님을 돌보면서도 대모님은 웃음을 잃지 않으셨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에도 주일 미사만큼은 빠진 적이 없노라 말씀하셨죠. 우리 대모님!

다시 건강을 되찾아 열심히 일하시는 남편 분, 이제는 결혼하여 공주님을 얻고 시어른, 시누이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큰 따님, 신부님이 되려했으나 평범한 대학생으로 이제 등록금을 한 번 만 더 내면 된다면 행복해하시는 우리 대모님, 그야말로 살아계시는 성인이 아닐까요?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없는 제게 손님이지만 가족처럼 감싸 안아 주시는 어머님들 그 분들 모두 살아계시는 성모님이 아니실까 생각해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제게 주신 마음 선물을 아직은 가톨릭 신자로써 부족하지만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두 번째 편지

수험생 이경하 레오 어머니 최미양 세실리아

사랑하는 우리 큰 아들 레오에게!

추워지는 날씨에 허둥지둥 젖은 머리로 등교하는 네 뒷모습에 엄마 마음이 짠하구나. 항상 부족한 엄마라서 미안했는데 수녀님께서 수험생 엄마로서 글을 써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너에게 편지를 쓴단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엄마는 33년 전에도 아름다운 5월 성모의 밤 행사에서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써서 읽었던 영광된 추억이 있다. 딸만 넷 있는 우리 집에 남동생을 주셔서 우리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첫 번째 편지였지. 그 때 태어난 남동생이 지금 네 외삼촌이야. 얼마 전 그 외삼촌이 네게 용돈도 주고 간식도 사다주었지, 특히 삼촌 첫영성체 때 받은 묵주라며 주고 갈 때 엄마는 가슴이 뭉클하고 많이 고마웠어. 엄마는 외삼촌을 볼 때마다 “성모님 고맙습니다.”를 잊지 않는단다.

성모님께 드리는 두 번째 편지인 이번 편지엔 무슨 내용을 써야 고3 수험생인 우리 레오에게 힘이 될까? 갑자기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네. 왜 엄마는 우리 레오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를까. 네가 너무 고마워서겠지. 그리고 너를 주신 하느님께 너무 감사해서지. 엄마는 확신한다. 네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세 살도 안돼서 동생이 태어났어도 시샘한번 하지 않고 동생을 예뻐하고 잘 봐준 의젓한 우리 경하야, 넌 초등학교 4학년 때 시험문제 하나 틀린 짝꿍

이 엉엉 울어 많이 틀린 네 시험지를 보여주며 그 친구를 위로해줬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엄마는 너의 그릇을 알아 봤지. 물론 속은 좀 쓰렸지만. 넌 늘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최고의 친구가 되어 주고 속 시원한 상담자 역할을 해내지. 선생님들과 주변 분들이 널 칭찬하시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엄마는 항상 감사하단다. 또래보다 작은 네 키가 속상할 텐데도 엄마 마음을 헤아려 한 번도 엄마에게 키로 고민하는 말은 안했어. 정말 미안한 기도 하고 고맙단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로 힘들어 하던 엄마에게 교사를 그만 두고 아이들에게 좀 더 집중하라고 결단을 내려준 아빠 덕에 기도 모임도 가고, 레지오 단원도 되고, 반장도 하라 시고 정말 감사하며 편안하게 수험생 엄마로서 생활하려 노력하고 있지. 100일 기도를 시작할 때도 엄마는 ‘곰도 마늘과 썩을 먹고 100일간의 기도 끝에 인간이 되었는데 우리 레오는 우리의 기도와 주님의 사랑으로 100일 후 대학생으로 변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라며 기도에 임했지. 그런 엄마에게 며칠 전 미용실에서 발견한 동전 크기의 원형 탈모는 엄마를 다시 돌아보게 했어. 모두 하느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난 참 편안하려고 했는데…….

순간 엄마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고 뭔가 숨겼던 것을 들킨 참담한 기분이 들었어. 그리고 당사자인 너는 어떨까? 얼마나 힘이 들고 걱정이 될까?……. 미안하다. 레오야. 그래도 엄마는 다시 기도로 힘을 낸다. 하느님께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라는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처럼 용기 내어 씩씩하게 레오 안에 들어가 레오가 되어 볼게. 그래서 네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같이 기도해줄게. 우리 레오에게 무엇을 주실지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려보자.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분들을 기억하며 행복하게 지내자. 항상 좋은 말씀과 기도를 해주시는 성당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레지오 분들이 계시고 참쌀밥 해주라고 참쌀 보내오고 기도하며 네잎클로버 찾아 책장마다 모아 책 한권을 보내오고 외할머니 댁 모두 미사 넣어주고 기도하시고, 다섯 살 사촌 한비까지 모두 널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니 말이야.

올해도 마지막 달력엔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를 크게 써야겠다. 엄마가 네 달력에 써준 글 중 3월 달력에 있는 글 알지?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이사야서 49:14-15).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께 선택되고 구원받는 그 과정을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가자 레오야. 사랑해♡

마카오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명도회 교리교사 최동준 보나벤투라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101명의 목5동성당 교우와 2박 4일로 마카오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마카오는 1836년 12월 3일,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생인 십오륙 세의 김대건 안드레아, 최양업 토마스 그리고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이 한겨울에 조선을 출발하여 만주, 북경, 남경, 황주를 지나 광활한 중국 대륙 1만 2천7백 리를 종단하여 6개월 여 동안 걸어 다음해 6월 7일 도착한 유학지입니다. 낯설고 물신 마카오에 도착한 소년들은 견디기 힘든 날씨부터 어린 나이에 고국을 떠난 두려움에 온몸과 마음이 무거웠는지,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학생은 마카오(Macau)에 도착해서 1년 여 만에 위열병으로 돌아가시어 마카오의 솔피(松山)라 불리는 곳 어딘가에 묻히셨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두 분의 순교를 위해 더욱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세 분의 6개월여의 험난한 순례길을 생각하니 3시간여의 비행기 여행으로 도착한 호사는 순교 신앙 선조들에 대해 성지 순례라는 말 자체가 사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합니다.

이영춘 세례자요한 주임신부님의 안내로 마카오에 도착해서 세 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우리나라의 종로구만한 마카오에 대해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와 보는 마카오의 차창에 비치는 ‘펜하성당’의 풍경에 감탄하며, 카지노만 있는 줄 알았던 마카오가 아시아 가톨릭 선교의 근거지이며 출발점이라는 설명에 신자로서 기대와 설렘이 일었습니다.



펜하성당

마카오에서 제일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한 1622년에 세워졌다는 펜하성당에 오르는 것으로 순례는 시작되었습니다. 평일이어서 조용한 성당 마당은 웨딩사진을 찍는 신혼부부들의 희망으로 꽉 찬 것 같았습니다. 순례단도 단체 인증샷으로 일체감을 확인했습니다.

성 로렌스성당은 제단에 라우렌시오 성인상이 천사의 호위 아래 서 있으며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그려진 스테인드글라스가 오색찬란하게 빛나는 1569년 예수회에 의해 세워진 아름다운 성당으로 순례 첫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신부님께서 강의해 주신 마카오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 역사적인 의미를 들으며 은혜로운 장소를 순례하는 은총의 시간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성모상이 모셔진 정원의 육각 정자는 동양미를 물씬 느끼게 했으며, 유리에 부조한 십사처는 인공적이기는 해도 머리 숙여 기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신부님께서 특별히 세례자



로렌스성당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모습이 부조된 석상의 세례대가 있는 세례당을 환기시켜 주셨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성당 입구의 특별한 세례 전용 공간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성 요셉신학교와 요셉성당은 중국과 동남아 각지에 파견할 예수회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1728년에 시작하여 1758년 바로크 양식의 성당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제대 오른편 캐비닛에는 예수회 최초의 동방 선교사로 중국에서 선교한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오른팔 뼈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성당 옆 철문을 통해 신학교 마당과 기숙사와 전시실을 살펴 볼 기회를 주셨는데, 정원에는 마테오 리치 동상이 있고, 아름답고 목들이 각지로 파견되었을 선교사들의 노고와 각오를 오늘의 순례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오롯이 지켜온 듯 고고하게 서 있습니다. 전시실은 교수 신부



성요셉성당

님과 선교사 신부님들의 유물인 책과 편지들이 잘 정리되어 전시돼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좌우명으로 새겼을 말씀인 듯 걸린 ‘千緣一善 萬波同源’이라 쓴 족자를 보니 오늘의 신자들을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 알려주는 듯했습니다. 四書三經을 다 터득하고 중국 선교에 나섰다는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느끼며 그 숨결이 남아 있는 전시관을 돌아 볼 수 있는 은총에 감사했습니다.

신학교 견학을 끝내고 성 아우구스티노 광장의 얼룩 물결무늬의 색다른 바닥을 즐기며 동양 최초의 서양식 돔 페드로 5세 오페라 극장 앞을 지나 다시 버스에 올라, 드라마 ‘궁’의 촬영 배경이 되었던 ‘콜로안 빌리지’라는 작은 어촌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시아의 선교의 주역이었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을 기리는 성당인데, 성당 한 쪽 벽면을 김



성바오로성당



까모에스공원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초상화와 한국 천주교 103위의 성인화와 여의도 시성식 때의 사진 등 한국 가톨릭 기념사진으로 채워놓아 우리나라의 어느 시골 성당에 온 듯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마카오의 상징이 된 마카오 타워와 윈 마카오 야외 분수 쇼를 둘러보고 세계 최대의 카지노가 있는 베네시안 리조트에 들러 마카오의 다른 한 면을 인증하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마감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내일 만나 뵈세 분 유학생의 발자취를 꿈속에서 미리 느껴보게 하소서!

둘째 날 첫 순례지로 도착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동상이 있는 까모에스 공원은 흰 비둘기 공원이라 불리며 마카오에서 가장 오래된 빵갈 보리수가 있는 조용하고 한적한 휴식처입니다. 이국적인 나무로 가득 찬 공원에서 한복 입은 신부님의 동상을 대하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마카오 신자들이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 신부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짐작케 했습니다.

공원을 돌아 나와 세 분 신학생이 기거하며 공부한 파리외방전교회 자리를 건너 안토니오성당으로 향하며, 어렵고 고달픈 생활의 연속이었을 세 분 신학생이 조국과 그리운 가족을 생각하며 이 성당 어느 자리에선가 기도하며 애태웠을 심정을 떠올리

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현지에 파견된 한국 공성식 신부님으로부터 현지 신자들 80%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대한 사랑으로 한국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는 말씀을 들으며 하늘에 계신 김대건 신부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겠다는 분심을 즐기며, 제대 아래쪽에 안치되어 있는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 신부님의 발등 뼈조각을 친견하고, 별실에 모셔진 김대건 신부님의 목상(木像)을 찾아 주모경을 바쳤습니다.

성 바오로성당 유적은 안토니오성당 옆길을 따라 오르막 계단을 지나니, 마카오의 가톨릭 상징물로 순례객을 압도할 만큼 웅장한 바오로성당 유적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태풍으로 소실되어 전면부와 계단만이 남았지만, 중국식 사자와 용 등 유럽의 성당에서는 볼 수 없는 이미지가 새겨진 부조의 의미를 설명 들으며, 25년 전 관광객으로 잠깐 돌아 본 때와는 다른 감회에 젖었습니다.

마카오 주교좌성당과 성 도미니코성당은 예수회 성당을 개조해 구축한 포르투갈 군의 요새로 22개의 대포가 배치되어있는 몬테 요새를 지나고, 마카오의 유명한 '에그 타르트'를 맛보며 잠깐 일반 관광객이 되어 눈과 혀를 흥겹게 하고 1622년에 건축되어 성모 마리아께 봉헌된 주교좌 대성당과 주교관



세나도광장

을 둘러보았습니다.

또한 1587년 성 도미니코 수도회에 의해 건축되었으며, 중국에서 지어진 최초의 성당 건물인 성 도미니코성당에서는 지금까지 예수회 성당에서 보지 못한 흑백의 십자가인 도미니코 회 문장을 보았습니다.

세나도 광장에는 광장에는 거대하고 화려한 원색의 중추절 육 층 정각 모형 기념탑과 하늘 높이 이어진 연등들이 축제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세나도 광장은 마카오 시청사 정면에 있는 것으로 물결무늬 모자이크 바닥이 인상적인데, 이 광장을 중심으로 마카오의 주요 관광지가 모여 있고 광장의 예쁜 분수대에는 교황자오선(教皇子午線)이 표시된 큰 지구본이 있습니다.

적당히 피곤한 몸은 홍콩행 페리 탑승 후 달콤한 잠으로 이어졌는데, 온전히 그 옛날 신학생들의 고

난에 동참키 위해 역시 수녀님은 배 멀미 고통을 자청(?)해 우리의 여정이 순례길임을 확인시키십니다.

주교님의 특별한 지시로 기해박해의 모든 기록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로마 교황청으로 보내는 작업을 위해 최양업 신부님께서 머무신 홍콩에서의 첫 발 걸음은, 홍콩의 백만 불짜리 야경을 볼 수 있는 빅토리아 파크에서 시작했습니다.

성 요셉성당에서 무사와 평안을 위한 감사 주모경을 바치고, 영국령이었던 홍콩의 성공회성당에 들러 신부님으로부터 두 교회의 전례와 특징을 설명 듣고 홍콩 교민들을 위한 홍콩 한인 가톨릭 천주교회에서 주임신부님 주례로 순례 결산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신앙 선조들의 이백 여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성지순례의 뜻을 새롭게 새기며 진정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기쁨마음으로 '은혜로운 장소'를 찾아 '은총의 때'를 맞보며 신자의 특권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순례의 총 강론을 들으며 감사미사를 드리고, 마카오를 거쳐 귀국한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한 은총의 순교성월 성지순례를 마무리하는 영광의 한 달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순례의 여정을 마련해 주시고 참여하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와 흠송 올립니다. 또한 순례를 계획하시고 편안히 다녀 올 수 있도록 애쓰시고 배려해 주신 이영춘 세례자요한 주임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주님과 함께 하는 호흡

이분필 마리아나

9월 21일 수요일 지속적인 성체조배회에서 피정을 겸하여 경기도 양평에 있는 끈뚱알 프란치스코 꼴베수도원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단체와 달리 성체조배회는 목5동 본당 역사의 산증인이시며 오랜 시간 기도으로써 본인은 물론, 주변사람, 본당공동체, 사제, 수도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런 저온현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회원들의 참여를 걱정하며 7시경 성당에 도착해보니, 지각하신 분 한 분 없이 오히려 약속시간보다 늦어진 버스를 기다려 주시는 모습을 보며 염려했던 마음이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원장수녀님을 모시고 두 대의 버스(선착순 80명 모집 때문에 경쟁자를 이기신 분들)는 7시 40분 성당을 출발하여 9시 45분에 양평 꼴베수도원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양평으로 가는 길은 때 이른 코스모스가 우리를 반겨주었고, 복잡한 일상을 떠나 맑은 공기와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을 보며 자연이 마련해 준 잔치에 우리들은 저절로 기도 분위기로 이끌리는 듯 했습니다.

도착 후 잠시, 산책 겸 수도원을 둘러보고 바로 성당에 모여 이칭호 안드레아 신부님의 지도와 함께 성체현시, 성체조배, 성체강복의 시간을 갖고,

오전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기도의 정의와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란?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과 대화를 한다면서 늘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쏟아내고, 하느님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가끔은 외롭고, 슬프며, 눈물을 흘리신다.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성체조배가 기본이 되어야하나 현실적으로 잘되지 않고 있음이 한국교회의 어려움이다.

대화의 방법은 다양하다. 말로 주고받는 것, 수화, 글로, 눈빛으로……. 하느님과의 대화가 기도이며, 기도의 정점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내밀한 통교이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염경기도: 소리내어하는 기도(기도문 내용을 음미하며)

둘째, 묵상기도: 자유, 기억, 지력, 의지를 합하여 나를 온전히 바쳐드리는 기도 (이나시오 기도법)

셋째, 관상기도: 거울을 보듯, 물끄러미 바라보며 숨 쉬고 머무르는 것

한국 가톨릭 신자 90%가 기초단계인 염경기도 수준에 머문다.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과 하느님

과의 만남을 위해선 관상기도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일정시간을 정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조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전 강의를 마치고 즐거운 점심시간, 정성스레 마련된 점심은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우리들의 육신을 위한 또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특히, 박순성 사비나 자매님께서 회원들을 위해 식혜와 솔잎송편을 만들어 오셔서 더욱 행복했습니다. 85세 고령이심에도 매일 조배와 미사를 봉헌하시고,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맛있는 음식으로 많은 이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힘 또한 조배를 통해 하느님께 받은 은총(?)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오후 강의는 조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 호흡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호흡에는 들숨(루아); 숨을 깊이 들이쉬며(짧은 기도 예; 주님! 사랑!)

날숨(네페쉬); 숨을 천천히 내쉬며(짧은 기도 예; 감사! 평화!)

들숨, 날숨을 통한 기도훈련을 하면 분심에서 해방될 수 있다. 등산할 때 잡념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는데 이것은 호흡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맑은 물에 찌꺼기가 들어있는 병이 흔들리면 속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분심이 가라앉지 않으면 하느님이 안 보인다. 병속의 찌꺼기는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분심과 같다. 그러나 분심은 고마운 것이기도 하다. 분심이 생긴

다는 것은 곧 기도를 시작했다는 증거다. 영성생활을 하지 않으면 분심도 없다.

다만, 분심을 쫓아가면 안 된다. 분심은 꿈과 같아서 기억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다. 또한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래서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집요한 분심(경제적 문제, 아이들 문제, 인간관계...)은 현재의 나를 지배한다. 이것을 벗어나야 제대로 된 기도가 가능하다.

수많은 종류의 나무 중에 가장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이듯이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무리 조배를 열심히 하고 진리를 깨닫는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성막시밀리아노 꼴베 성인의 말씀을 끝으로 신부님의 오후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어진 파견미사 전례 중에 16명의 신입 조배 회원들의 봉헌식과 함께 각자의 손에 들린 촛불이 제대 앞에 놓여 마치 우리의 모든 소망, 희망을 노래 하듯... 미사 내내 함께 타 올랐습니다.

미사 후 무심히 올려다본 하늘빛이 맑고, 푸르러 오는 피정을 통해 마치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하느님 가까이 다가간 듯 했습니다. 목5동성당 지속적인성체조배회원들의 마음마다 강력한 영적에너지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해주신 신부님, 수녀님, 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순교자 성월

한국 천주교 신앙의 원천을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최동준 보나벤투라



9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한 나의 순교성월!

가톨릭 교리신학원 재학 중 세계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 교수 신부님이셨던 이영춘 세례자요한 신부님께서 목5동성당 주임신부님으로 부임하시어 서서울 지역청이 자리하고 있는 본당은 교리수업이 일년에 한두 번밖에 없어 배움의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예비자를 위해 가톨릭 교리신학원 졸업 교리교사 형제자매님과 ‘함께하는 여정’ 지도봉사자를 중심으로 교리 교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영춘 주임신부님께서도 교회사 교수 신부님답게 교리 교사회를 ‘명도회’라 이름 짓고 가능한 매월 예비자를 모집하여 교리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도회(明道會)는 한국 천주교회 초기에 중국인 주문모(周文謨, 야고보) 신부에 의해 세워진 평신도들의 교리연구 및 전교단체인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는 회’라는 뜻으로 조직되었고, 명도회원들은 우선 자신들이 천주교에 대해 깊은 지식을 얻도록 노력하고 다음으로는 그것을 교우와 외교인들에게 전파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었던 뜻을 살려 교리교사로 봉사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온 전통적인 가톨릭교회를 이단으로 잘못 배워온 적지 않은 예비자들에게 교리지식을 넘어, 200여 년 전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 없이 평신도들만의 힘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세웠고, 100여 년에 걸친 모진

박해시대를 거쳐 단단히 뿌리내린 한국 가톨릭교회의 역사와 순교 신앙 선조들의 삶의 현장과 순교성지를 체험적으로 전해주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자주 성지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또한 어설프나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을 깨닫는 길(道)의 일환으로 작년 산티아고 도보 성지순례 이후 국내 성지도 도보로 순례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2010년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32일 동안 스페인 산티아고 데 까미노의 2000리 프린세스 길(路) 위에서 기도로 하느님과 대화를 즐기며, 주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을 벗 삼아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했습니다. 스페인 서북쪽 끝 꼼빠스텔라 데 산티아고 성당에서 순례자를 위한 축복미사 끝에 영성체를 통해 지복직관(至福直觀)의 체험을 한 순례 길에 이웃과 함께하며 호의와 배려로 온유한 심성을 키우고 배우며, 마음과 물질의 나눔이라는 선의 실천을 통해 이웃사랑으로 하느님 나라를 길 위에서 맛본 경험을 한국 천주교 성지 및 사적지 도보순례를 이어가며 그 감동과 체험을 예비자들과 나누고자 희망해 봅니다.

한국 천주교 성지순례 소책자의 111곳의 성지 및 사적지를 중심으로 도보로 다시 돌아보는 목표를 나의 버킷 리스트(죽기 전에 꼭 해야 할 12가지 일)에 올려놓았습니다. 200년의 한국 순교자들의 믿음과 삶을 기도 중에 기억하기 위해 명도회 교리교사로 뿐만 아니라 신자로서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아 성지

나 사적지를 어디서부터 순례할까 계획하고 있었는데,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주님께서 9월 내내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성지순례를 떠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9월 4일 솔미-합덕-신리 순례

한국평신도 협의회 주최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 125위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10km 도보성지순례에 초대 받았습니다. 한국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지인 솔미에서 대전 교구장 유홍식 라자로 주교님 집전미사 후 출발하여, 복음을 밝힌 지 120년이 넘은 충청도 내포평야에 대표적 성당으로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 사제와 수도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성소의 요람인 합덕 성당에서 잠시 쉬며 성소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성 손자선 토마스와 동료 순교자들의 묘지인 대전 상개리 야산의 무명 순교자묘역을 돌아 나오며 누린 별관을 가로질러 넓은 논 가운데 있는 박해가 가장 오래된 교우촌 가운데 하나이며 성 다블뤼 안 주교의 주교관(교구청)이 자리했던 곳으로 안 주교님은 이 집에서 신유박해와 기해박해 그리고 병오박해 당시 순교한 이들의 행적을 조사하여 한국 가톨릭 교회사를 집필했다는 신리성지까지 도보순례로 하루 순례를 정리하며 김대건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 그리고 많은 무명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귀경했습니다.

9월 18일 새남터-당고개-서소문성지 순례

서울평신도 협의회 주최로 도시를 걷는 6km짜리

도보성지순례에 초대 받아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비롯한 한국 교회 역사상 순교한 성직자 열네 분 가운데 열한 분이 순교한 새남터에서 염수정 안드레아 주교님 선두로 출발하였습니다. 단장을 마친 아홉 분의 순교성인과 시복시성을 기다리고 있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가 순교한 당고개 순교성지를 시복시성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돌아보았습니다. 공개 처형장으로 한국 천주교 수난의 상징이며 이곳에서 순교하신 분들 중 44위가 시성되었는데, 단일 순교지로는 성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이곳 서소문성지에서 때 맞춰 정진석 니콜라오 교구장 집전으로 증림동 약현성당 분당설정 120주년 기념과 순교자 현양미사 때 순교성인들의 시복시성과 우리도 그 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하는 미사로 순례를 마쳤습니다.

9월 23일 은이(隱里聖址)-골배마실 순례

서서울 지역청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과 함께한 성직자 부모 성지순례는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유년기를 보낸 골배마실로 첫 영성체를 하고, 마카오에서 사제서품 후 돌아오시어 첫 사목을 하신 곳입니다. 체포 전 마지막 미사를 집전하셨던 은이 공소 성지에서 골배마실까지 6km의 어린 성인께서 걸어 넘던 적잖이 가파른 옛 산길을 걸으며 이 산을 넘나들며 공소 예절로 신앙을 키우셨을 소년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 신부님을 떠올리며 도착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옛 집터 골배마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하루 일정을 경건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당고개 순교성지



서소문



새남터



약현성당

가톨릭성서모임 요한반 현장탐방

내 발을 씻긴 예수

가톨릭성서모임 요한반을 9월에 탐방하였습니다. 다른 성서반과 마찬가지로 올 2월에 개강한 요한반은 봉사자님을 비롯한 총 8명이 매 주 화요일 10시에 성당에 모여 한 주 동안 공부하고 묵상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며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날은 개인 사정으로 한 분이 참석을 못하여서 봉사자님과 반원 일곱 명이 공부했습니다.

- 봉사자 : 오늘 우리는 제10과 스승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장을 공부합니다. 최후의 만찬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으며 각 자의 생활과 공동체 안에서 발씻김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묵상한 것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에따: 발씻김은 최고의 사랑인 거 같아요. 수험생 기도모임을 다니면서 필요할 때만 매달리는 저를 보게 되고 반면에 함께 하는 봉사자들을 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닌 어떤 신비로운 힘을 공동체 안에서 느낍니다. 그런 분들의 도움과 배려가 발씻김의 간접 체험입니다.

마리아: 발씻김은 구원을 향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통과 의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은총이죠. 실제로 아들의 발을 씻겨 보았는데 몽클한 감정이 들며 내 욕심으로 키우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발씻김은 제 마음을 겸손하고 가난하게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서로 작아져야 할 거 같은데 신앙심이 작은 탓인지 상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친절도 가식인거 같아-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로사: 발씻김을 해주고 싶은 사람은 남편입니다. 살갑게 하고 싶지만 늘 어긋나죠^^. 묵상을 하며 난 씻어주기 보다 씻김만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냉담, 부정 등 자주 배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 받아주시는 그분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따르려 합니다.

그라시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발씻김 예식을 하신 거 같아요. 식구들의 발을 씻겨 주다 보니 무척 어색했지만 남편과 아이들의 발을 자세히 볼 수 있었죠. 이렇게 예쁜 발만큼 내 눈 앞에서 예쁘게 커 주면 하고 울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서로의 발씻김의 첫 단계가 아닐는지요.

보노사: 공동체 안에서의 시기와 질투가 서로를 어렵게 하는 거 같아요. 평상시에는 잘 지내거나 문제없다가도 상대가 조금만 나보다 나은 상황이 발생하면 여지없이 마음의 평정이 깨져서 힘이 들어요.(모두 웃음 및 동감^^) 방법이 있을지.....

세실리아: 영적이 힘을 쌓으면 단단해 지는 거 같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집착하는 것들이 부질없고 텅 비어 있는 것들이란 걸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부족함을 반복하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자 맘먹는 은총을 매일 받으며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맘을 먹게 됩니다.

카타리나: 전 최근에 나와 남편, 나와 부모, 나와 자식 이런 관계 속에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위치에서 내 처지와 생각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입장이 바뀌었을 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불편하게 했는가를 보게 된 것이죠. 발을 씻어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의 차이라고 할까요? 반성하며 계산하지 않는 삶을 지향하고자

봉사자: 오늘 주제가 여러 가지이고 또 깊고 어려운 것들인데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준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 위안 등의 필요를 느끼지 않겠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고, 그분을 통해 그리고 이웃을 통해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발씻김을 해 주시고 새로운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일 것입니다.

발은 매일 신발을 신어야 하고 걸어야 하기에 모양이 틀어지고 상하고 고단하고..... 그래서 다른 이에 게 보이기 어려운, 어찌 보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지 싶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바로 그 숨김없는 나를 만나기 위해,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 손수 발을(나를) 씻겨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죽음 앞둔 그분은 나의 발을 씻기셨다네.

먼 훗날 당신 앞에 나설 때 나를 안아 주소서 !!”

취재 · 정리 mari

초등부 복사단 파이팅

초등부 복사단 복사대장 한정훈 율리아노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목5동 성당의 복사대장 한정훈 율리아노입니다.

제가 복사생활을 하고 복사대장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느낀 점을 글을 쓰면서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5동성당을 유치부 때부터 다니기 시작하였고 3학년 때 첫 영성체를 하고 그해 겨울방학부터 복사 준비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 한 가지는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께서 본당에 부임해 오시어 첫 인사를 하실 때, 제가 화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특별한 추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3년간 복사를 하는 동안에 신입복사를 하고, 후배들이 많이 생기고, 선배님들 졸업을 두 번 씩이나 보면서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복사가 되기 위하여 한 달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추운 날씨에 새벽미사를 나가고 복음도 매일매일 써가고 했던 기억, 드디어 신입복사 예식을 거치고 제가 신입복사가 되었을 때 마치 특별한 사람이 된 듯 자랑하고, 복사대장 형들을 보면서 저 자리에 서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첫 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하고 복사 서는 날을 잊지 않기 위해 정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빡한 경우도 물론 있었지요. 그러면 어김없이 별로 새벽미사 복사를 다섯 번 서야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신입복사가 들어오고 지훈이, 진

영이, 문채란 그리고 문채선 같은 동생복사들과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유진이 형이 복사대장이었는데 형이 동생복사들을 대하는 다정하고도 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복사대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해 처음 복사학교로 복사캠프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엄격하고 지루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복사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 그리고 복사를 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해주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경험은 제가 성숙해지고 좀 더 복사다운 마음가짐을 가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사단은 1년에 두 번, 축일파티와 졸업복사들을 위한 졸업파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들이 만들어 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는 즐거운 캠프도 있어서 학사님들과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지요. 복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매주 토요일 2시에 회합을 하고 미사와 교리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의무 사항이며, 솔직히 좀 더 신경 쓰이는 건 매주 주일 복음과 묵상을 쓰며 거기다 부모님 묵상까지 써야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부모님께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복사 설 때마다 항상 동행해서 함께 미사를 보시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저 뿐만 아니라 복사들 부모님 모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엄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6학년이 되어 복사대장을 뽑는 날, 마음속으로 복사대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가 드디어 복사대장이 되니 넘 기뻐합니다. 부대장은 한민지 효임 골롬바 입니다. 처음에는 대장이라는 책임감과 모범이 돼야 한다는 압박감에 긴장이 되고, 나름 실수도 하고, 본의 아니게 큰소리도 냈지만 지금은 신복들도 잘 적응하고 구복 형님, 누나들과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친해 질 수 있었던 계기는 8월 말 복사 가족캠프에서였습니다. 복사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가족캠프는 복사생활을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펜션에서 수영하고, 펜션 안에 있는 찜질방에서 찜질하고, 게임도 하고, 그동안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신복이나 동기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밥해주시고 안전요원 해주시느라 힘드셨겠지만 우리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저녁에는 이영춘 세례자요한 주임신부님의 영명축일 축하행사를 했는데 선물과 함께 우리 복사들이 직접 쓴 편지를 전달하였고, 복사들 중 재주 있는 친구들 3명이 작은 음악회를 방불케 하는 연주를 하여 신부님도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이런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주신 신부님과 수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복사를 설 때 아직도 긴장을 합니다. 겉으로는 나는 복사대장이니까 실수 같은 건 안 해. 이렇게 잘난 척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더욱이 주로 6학년이 주복을 서므로 종을 치게 되는데 그 순간이 가장 긴장하며 떨리는 때입니다.

이렇게 긴장과 책임감, 즐거움이 반복되며 최고학년인 6학년 이 학기도 반을 지나고 졸업도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목5동성당의 복사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복사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동생복사들 하고도 잘 지내는 멋진 복사대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사친구, 동생들 사랑하고 신부님, 수녀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시고 제가 복사 설 때마다 늘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복사단 부모님 모든 분께도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목5동성당 초등부 복사단 파이팅!!! 🙌



초등부 운동회를 마치고

최지원 카타리나

안녕하세요?

저는 경인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신입복사 최지원 카타리나라고 합니다.

2011년 10월 8일 목일 중학교에서 성당 초등부 운동회를 하였습니다. 그 운동회엔 목3동 목4동 목5동 양천 목동 신정동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팀을 총 8팀으로 나누어졌어요. 저는 그 팀 중 연두색 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운동회 시작 전에 몇 가지 게임을 하였습니다. 1번은 밧줄 넘기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철통 안에 밧줄을 넣어 밧줄을 먼저 다 뛰어넘어 끝까지 가는 팀이 이기는 거였습니다.

우리 팀은 잘 가다가 갑자기 “깡”이라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글썩 한 오빠가 철통을 밟아 철통이 “깡” 소리를 내며 박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배꼽을 잡고 깔깔깔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빠는 살짝 무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졌지만 즐거운 표정으로 밧줄 넘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후 몇 가지 게임을 더 했는데요. 징검다리 줄다리기도 레크레이션은 2번이나 했습니다. 그렇게 재



초등부체육대회 (2011.10.8 목일중학교)



미있게 놀이를 하고 있는데 제 배속에서 꼬르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1시 40분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린 땀을 씻거나 그늘로 가서 김밥 한 줄과 음료를 하나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김밥 한 줄로 배가 안 찼어요. 제가 먹는 걸 많이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ㅋㅋ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땀아래 있었는데 딸랑 김밥 한 줄만 먹다니 좀 허무했습니다. 그래도 간식 시간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우리는 밥을 다 먹고 나서 피구 시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우리 연두 팀은 그만 주황 팀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ㅠㅠ

우리는 모든 운동회가 끝나고 경품 추첨을 했는데 경품은 총, 축구공, 배드민턴, 줄넘기, MP3 그리고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아쉽게 모두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운동회를 완전히 끝내고 팀과 성당끼리 사진을 찍은 뒤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운동회 날은 땀이었지만 그래도 아주 즐거웠고 서로를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건강도 지키고 마음도 즐거워지는 곳으로 가서 재미있게 놀아 보세요.

초등부 운동회 파이팅!!! 🙌

중고등부 행사 십오야를 마치고

고2 류주연 요안나



10월 9일, 중고등부 행사인 '십오야'가 있었다. '십오야'는 15양천지구에 속하는 성당의 학생회 아이들이 함께 모여 진행하는 행사인데, 이를 위해 양천지구 모든 성당의 친구들은 3월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다.

게임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진행멘트, 행사에 필요한 준비물까지 양천지구 학생회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 짜고 만들 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행사에 놀러온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 매우 뜻 깊고 보람되었다.

이번 2011년 '십오야'에서는 포스트 형식으로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들어 놀러온 학생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하고 싶은 게임을 하게 했다. 게임

은 기적, 고난, 희생, 용서, 비유라는 다섯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각 주제에 맞는 성경구절을 찾아 그에 맞게 만들었고,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이런 주제들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작년에는 그냥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으로서 있었는데 올해는 행사의 스텝으로 참여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내 자신이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다. 특히나 이 행사의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다른 성당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좋았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니 더 잘 맞고 서로 배려도 많이 해주면서 즐겁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성당만이 아닌 다른 성당 친구들과 함께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간을 고2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하지 않았나 싶다.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학생회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행사준비를 처음 경험해 보았다.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캠프나 피정 같은 여러 행사를 준비하실 때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나하나 준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학생들을 위해서 각 프로그램마다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기획하고 준비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선생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내년이면 나도 고3이라 이 행사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모든 행사에도 참여하기 힘들겠지만 올해

고1, 즉 내년에 고2가 되는 양천지구 학생들이 모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 굳게 믿는다. 새로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그 만큼 열정 가득한 학생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치게 되어서 너무나도 보람된 하루였다. 마지막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신부님과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19)”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무언가

청년복사단장 홍성민 대철 베드로



유아세례를 받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성당을 다녔다. 그때는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마치 공부하듯이 열심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 학교 출석하듯이 성당을 갔다. 그저 열

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시기가 지나고 중학교 2학년 부터 냉담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갑자기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존재 자체를 몰랐는데, 그들이 지옥을 간다면 불공평한 일이며 그들 중에 세종대왕과 같은 인물도 있을 것이니 그들이 있는 지옥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천주교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신앙을 버리고도 불안하지 않을 만큼 자신감이 넘쳐 있었다. 중고교 시절 열심히 하는 데 안 되는 것은 없었으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재수를 시작한 이후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도덕적으로 잘 못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나의 의지와 행동과는 무관하게 구설수에 오르고 그 상황에 대한 잘못된 대처로 인간 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세상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자신감이 땅에 떨어졌던 기억이 난다. 좌절감과 힘든 상황이 계속 되어 내가 힘들어 하자 주변 사람들은 성당 청년 활동을 권했고 2009년 3월 경 청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목5동 청년 활동은 크게 3가지 선택이 있었다. 전례단, 성가대 그리고 복사단. 여자가 없다는 점 때문에 복사단을 골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건데 하느님의 이끄심이었던 것 같다. 당시 상태로 다른 단체로 들어갔다면 아마 다시 냉담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같다. 어려운 시기에 복사단은 나를 챙겨주었다. 덕분에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새 삶을 살 수 있었다.

우울해하던 내가 답답했겠지만 복사단원들은 나를 잘 지켜봐 주고 격려해 주었다. 지금 복사단은 내 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되었다. 무

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고 나도 진심으로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복사단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잘 노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많지도 않으며, 대외적으로 특별한 특징도 없어 보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잘 챙겨 주는 따뜻한 단체이다.

복사단과 함께하는 동안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졌다. 복사단 덕분에 매주 미사에 참석하게 되고 성당에 있는 시간만큼은 하느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감사드린다. 어떤 위기가 와도 하느님께서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어려움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결국 위기는 내가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만 신앙은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힘이 된다.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자신감이 넘치고 행복해하며 신앙이 없어도 잘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문제는 삶에는 굴곡이 있다는 것이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넘치던 자신감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다.

과거에 나는 자신감이 없어질 때면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필요이상으로 자기방어를 하면서 그 공허감을 채우려고 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느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 부족을 극복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하고 싶다. 때로 신앙심에 회의가 들 때면, 나는 복사단원을 보는 즐거움과 복사를 서야한다는 의무감 때문이라도 성당에 가게 되는데 이럴 때면 회의도 순간 사라진다. 성당 단체 활동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

7-1구역 6반 소공동체 모임

반장 김진희 헬레나

“이 댁에 평화를 빕니다.” “어머! 빨리 오셨네요.” “오랜만에 빕네요.”

길에서 만나면 그냥 눈인사 정도하고 지날 터인데 반모임에 와서는 모두가 기쁜 얼굴로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8월은 방학이어서, 9월은 추석이어서 반모임을 하지 못하고 석 달만의 모임이라 그런지 더욱 정겹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2011년 하반기 반모임 시작 참석 인원수도 다른 때보다 많아 기분도 좋고, 거기에 꼬마 반원(?)까지 등장하여 간간이 재롱을 보여줘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합니다.

오늘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오(23 : 1-12)입니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로는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너희의 스승은 한 분 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등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마리아 씨는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하고,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일을 주님의 뜻에 맡겨 버리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올리안나 씨는 “물질적으로 풍부한 친구인데도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하니 모든 친구들이 좋아합니다.” 카타리나 씨는 “12절의 말씀처럼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지만 잘되지 않습니다.” 마리나 씨는 “예전에

는 시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했었는데, 요즘은 시어머니의 행동 말씀뿐 아니라 얼굴 모습까지도 편안해져서 더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텔라 씨는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 교우가 단체에 새로 들어온 자매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언행 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을 모였습니다.” 등등 서로의 마음을 열고 신앙생활을 하며 어려웠던 점, 섭섭했던 점, 살아오면서 느껴왔던 점들에 대하여 반원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반모임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이며 전교의 달입니다. 성모님께 영적인 삶을 살기를 희망한 기도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기도들을 하면서 냉담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해 그 교우들이 성당을 다시 찾고 반모임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성당으로 이끌만한 사람도 많이 찾아야겠지만 쉬는 교우를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푸르렀던 나무들이 단풍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의 코스모스가 유난히 눈길을 끄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 때에 맞는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고운 빛을 내며 늘 주님께 감사와 찬미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본당의 소식

❖ 10월 11일 여성 꾸리아 전단원 피정



❖ 10월 16일 신입교우 환영식



❖ 10월 18일 주교님 본당 사목방문



❖ 주임신부님과 함께 하는 교회사 강좌 9월 16일(금)~10월 14일(금)



❖ 본당 설정 25주년 사진전 10월 23일(일)~30일까지



도자기 교실

옛 옹기처럼 숨 좀 쉬세요

정재진 클레멘스

도자기 수업시간 | 금요일 1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우리네 삶이 너무 바쁘고 급한 탓에 쫓기 듯 살아가고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꼭 바빠서 좋은 일이 아니란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 자기만의 자투리 시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여유를 가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새 지는 낙엽을 바라보는 시절입니다. 이 가을, 성당 한편에서 한 덩이 흙을 마주하고 그를 주무르고 매만지면서 느긋한 한때를 즐겨 보는 것도 이 가을을 풍요롭게 즐기는 좋은 방법 중 하나겠지요.

우리 곁을 지켜오던 옹기들…… 흔히 옹기가 숨을 쉬한다고 합니다. 옹기 속에는 미세한 기공들이 있어서 공기는 드나들지만 물은 드나들지 못하기 때문에 숨을 쉬다고 표현합니다.

이른 새벽, 장독대에 늘어서있는 항아리를 닦으시던 할머니의 손길은 장독에 하얗게 배어나온

소금기를 닦아서 옹기단지를 숨 잘 쉬도록 도우는 손길이셨지요. 숨을 잘 쉰 옹기는 장맛이 좋아 집니다.

도자기는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생활 용품부터 장식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면서 오랜 친구처럼 친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들지 않아서, 또 너무 세련되지 않아서 푸근하고 정겨운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그릇을 보면서 우리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도자기로 만들어 가다보면 절로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이 가을, 못생긴 그릇하나 만들어 보면서 옛 옹기처럼 숨 좀 쉬세요.



색소폰

지도강사 김정음

색소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요셉방)

최근 들어서 취미생활로 악기를 배우시는 일반인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정보화시대에서 문화시대로 도래하면서 악기 하나쯤은 배우고자 하는데, 특히 사람의 육성과 매우 흡사하다는 색소폰은 국내에서 붐이 일어 3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011년 3월에 결성된 목5동성당의 색소폰 문화교실의 색소폰 앙상블은 팀명을 'H.O.P'라고 지었습니다. H는 HORN O는 OF P는 PEACE 즉 Horn of peace (평화의 나팔소리)입니다.

이곳 H.O.P는 단 한 번도 그 어떤 악기도 접해보지 않은 성인들(평균 연령 52세)로 남자들의 로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색소폰을 처음 접해보는 분입니다. 대부분 사회, 가정적으로 비교적 안정이 되신 분들이시고 성격 또한 감성이 남다른 분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색소폰은 10년 전만해도 일반인들이 배우기에

는 문턱이 높아서 취미로 하기에는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취미로 선택하고 있으며, 박자도 모르고, 악보도 잘 모르는 분들이 연습을 시작하여 6개월여가 지난 현재는 실력들이 많이 향상되어, 주변에 축하행사 때 연주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의 고된 일이 끝난 금요일, 특히 많은 약속이 있는 날이기도 한데, 그런 유혹에도 현혹되지 않고 매주 거의 90% 이상의 참석률을 보이고 모두 한마음으로 연습을 하시어 지금은 발표회도 열 수 있을 만큼의 실력들이 되었습니다.

목5동성당의 요한신부님 이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월요음악회 사진으로 보기(10월 17일)

가곡과 아리아의 밤



11월 7일 : 사랑으로 노래하는 우리 아버지 합창단
 11월 21일 : 우리가락 훨훨 슬기둥

11월 7일에는 지난 5월 본당 일치의 날 행사로 인하여 초대하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합창단'을 초청하여 이 시대의 주역인 우리 아버지들의 박력 있

는 울림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11월 21일에는 우리 전통음악을 현대적인 풍으로 들려주고 있는 '슬기둥'의 공연을 준비하여 봅니다. 📺

11월 월요음악회 기획에세이

- 합창을 함께 있어 -

글. 주세페 김동규 (예술감독)



나의 순간적인 잡념과 나태한 마음이 전체의 음정과 화음을 불안하게 하기에 나로 인하여 모두를 망치게 하지 않도록 음악에 임할 때에는 몸과 마음은 항상 깨어 있도록 합니다.

집중하여 연습하며, 음악적 약속들을 연습을 통하여 정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합창이기에 합창은 가장 민주적인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지휘자를 따르듯이 부모와 스승 그리고 타인을 존중한다면 이것이 바로 합창의 실천이며 합창하는 사람의 긍지일 것입니다.

합창 속에서 나는 홀로인 동시에 더불어이며, 조화를 이루게 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도적으로 노래하되, 절제하며 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합창연습은 연주처럼 진지하게, 연주는 연습처럼 부담 없이 리듬과 박자를 지키듯이 시간을 엄수하며 산만한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기에, 합창에 임하는 사람은 자발적인 동기와 열정이 있어야 좋은 화음이 이루어집니다.

음악을 통하여 세상의 부조화를 아름다운 조화로 이끌기 위하여 나 자신이 먼저 균형과 조화로운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합창을 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일 것입니다.

나아가 악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 헤아려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합창이기에 합창단은 이러한 창의적인 과정을 통하여 고유의 음색과 분위기 그리고 예술성을 갖게 됩니다. 📺

노래는 사람의 영혼에서 나오는 신비한 천사의 언어입니다. 서로 다른 음색이 어우러지는 합창은, 마치 가을의 단풍처럼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그려내듯이 합창단원들의 노랫소리는 각양각색의 울림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들이 모여 이루는 화음을 천상의 소리라 일컫기도 합니다.

들리는 음악도 아름답지만, 들리지 않는 음악 또한 아름답습니다. 바른 몸자세와 부드럽고 밝은 표정 그리고 한마음으로 집중하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음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에서는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게 빛나는 행위까지도 음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음악가들은 무대에서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며, 몸을 바로 세워 작지만 큰 울림을 만들고, 끊임없는 반복 훈련으로 인내심과 자신감을 키우며, 표정은 밝고 의연하게 유지함으로써, 들려지는 화음과 보여 지는 모습 모두가 아름답도록 합니다.

하늘땅물벼의 물품 소식

우리농산물 물품 변동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공급되는 물품 : 명태코다리, 황토 때비누, 아기천사비누, 한방야토피비누

현재 중단된 물품 : 썩간, 자두, 아삭 풋고추, 파리고추, 메론, 아욱, 깻잎, 도토리냉면, 찰수수, 밀라면, 사과, 자연생치즈, 청국장가루, 한우예찬찜갈비, 쌀물엿, 마가루, 카레, 착한새우, 생알땅콩, 감귤즙, 사과즙

* 호박고구마는 회원님들의 평이 좋지 않아 알아보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채소 생산 및 공급계획

2011년 김장배추는 무농약이지만 유기농 재배 방식으로 생산하였기에 무농약과 유기농을 구분하지 않고 코드 및 가격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공급기간

① 1차 공급 : 11월 4일(금) ~ 12(토) 9일간 : 통배추, 절임배추, 부재료

② 2차 공급 : 11월 28일(월) ~ 12월 4일(토) 6일간 : 절임배추

공급기간별 출하산지

① 1차 공급 : 청주, 원주, 안동, 홍천, 매산리 공동체

② 2차 공급 : 전주, 광주

* 젓갈 공급

생산지 : 광주교구 빗고을 식품, 공급기간 : 10월 10일 ~ 31일

* 소금 공급

생산지 : 광주교구 신안, 공급기간 : 10월 10일 ~ 31일

생산자 : 신용생, 생산시기 : 7월 ~ 9월,

생산방법 : 10kg - 탈수, 3kg - 탈수 후 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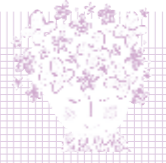
토종 종자 보존 운동

- 토종 지킴이 지키는 농민의 권리입니다 -

만약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진다면 많은 동식물들이 잇따라 사라지고 식량 고갈에 직면한 인류는 4년 안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일찍이 아인슈타인이 경고한 바가 있다. 실제로 이상기후와 생물종 감소, 각종 전자파의 영향으로 꿀벌의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맞먹는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녹색혁명이라고 불리었던 다수확 육종 품종의 개발과 보급으로 인하여 전 세계, 각 지역의 토종 종자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2011년 9월 1일 - 9월 30일 전입교우 명단

전입 월	교 우	주 소	지역 / 구역 / 반
9월	백종원 마르코 외3	목5동 목동A 330동	3지역 2구역 9반
	이성욱 베드로 외2	목5동 목동A 512동	5지역 1구역 7반
	한상진 미카엘 외3	목5동 목동A 202동	2지역 1구역 1반
	이방희 엘리사벳	목5동 목동트윈빌 C동	7지역 2구역 3반
	김정민 요한	목5동 한신A 105동	1지역 4구역 2반
	오명희 베로니카 외1	목5동 목동A 614동	6지역 2구역 5반
	김경숙 로살리아 외3	목1동 한청A 107동	1지역 4구역 3반
	임현수 아가다 외1	목5동 목동A 222동	2지역 2구역 2반
	김미자 올리안나	목5동 목동A 308동	3지역 1구역 8반
	김진관 마르티노	목5동 목동A 304동	3지역 1구역 4반
	백정흠 라파엘 외1	목5동 목동A 534동	5지역 3구역 7반
	이미리 세라피나	목5동 목동A 610동	6지역 2구역 1반
	조경희 요안나	목5동 목동A 119동	1지역 2구역 4반
	안도영 요셉 외1	목5동 목동A 611동	6지역 2구역 2반



★ 교우 여러분의 원고를 받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글이 해나리의 힘입니다. 성당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보고 듣고 느낀 일들을 원고지에 옮겨주세요. 분량은 A4 용지 1-2매 정도면 좋습니다. 원고 쓴 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해나리 메일로 보내주세요. haenari0330@hanmail.net 입니다.

옛날에 '은별'이라는 여관이 있었다. 주인은 시설을 편리하게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하고, 가격을 조절하는 등 애를 썼지만 수지를 맞추기가 힘들었다. 마침내 자포자기한 그는 현자를 찾아갔다.

현자가 말했다, "아주 간단하다네, 여관 이름을 바꾸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은별이라는 이름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데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네, 여관 이름을 '다섯 종'으로 바꾸고 종 여섯 개를 입구에 매달게나."

"여섯 개요? 말도 안 됩니다.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한 번 해 보게나,"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관 주인은 현자가 시키는 대로 해 보았다. 그랬더니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곳을 지나던 여행자들이 모두 자기만 그것을 발견했다고 믿고는, 종이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개라는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 들어왔다. 일단 들어와서는 서비스가 웅숭한 데 마음이 움직여 그 여관에 머물곤 했다. 그리하여 여관 주인은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다.

-앤소니 드 멜로-

유럽 학생들과 함께하는
제39차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주관 : 마 브랜단 신부
초4~고1 : 1/7~1/29(정규학교)
대 & 일반 : 1/3~2/19
*EID 학원 or 국립 더블린 대학교
문의 : 그린피스 E&T 02-3446-4253~4

상담센터 **행복한 아이들**
소장 정미나(헬미나) TEL 02-2653-4306~7
현대드림타워 209호 (방송회관 옆 스포츠조선 건물 2층)
아동상담 - 학습치료 · 놀이치료 · 언어치료
발달장애 - 통합치료 및 교육 미취학 또는 취학 아동의 예비학교
집단상담 - 학습능력향상 / 주의집중력강화 / 사회성 향상
성인상담 - 개인상담 / 부부상담 / 부모역할훈련
심리검사 - 자녀의 지적수준과 성격특성을 진단하여 정서 및 학습 등에서
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도움 방법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꿈나무 소아과
소아 아토피 피부염 정연정(안나)
소아 중이염 원장/소아과 전문의
알레르기 클리닉
영유아 발달검사
158-055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17 광장빌딩 3층
TEL : 02)2643-8155 FAX : 02)2643-8154

강서 성모내과
◆ 내시경 (위 · 대장 · 수면 내시경)
◆ 소음파 (심장 · 갑상선 · 복부)
◆ 혈액 종합검사
염창동 국민은행 앞, 전화 : 3662-7585
원 장 : 김 영 준 (펠릭스)

굿모닝 공인중개사
목동아파트, 한신청구, 부영전문
매매 · 전세 · 월세 구함
2649-9200
목동APT 6단지 611동 앞 관리동 상가
김정숙(효주 아네스) H.P 011-9498-9433

청기와 부동산
친절 · 성실 · 신뢰
☎ 2647-1223
목동아파트, 한신 청구, 주상복합 전문
목동 APT 5단지 C상가 104호에 있습니다.
김경화(로사) HP 010-2997-2987

정관장홍삼 신월동점
TEL.02)2693-0389
양천구 신월동 535-7 로즈그린타운 1층 101호
-대한민국명품홍삼-
소중한 분을 위한 최고의 건강선물 ※ 전국 무료 택배 ※
석영근(마르티노) 018-286-8387
(주)한국인삼공사 김은숙(카타리나) 010-8889-2083

햇볕치킨
김군자(마리아)
목동점: 02-2653-9282
- 309동 뒤 강서고등학교 입구 -

타임부동산
목동아파트 전문
안인근(안젤로) 조정례(안젤라)
(代)2654-1055
- 목동5단지 A상가 105호 -

이화 공인중개사
김은숙(비아) 김현숙(아네스)
Tel : (02)2644-0043
H.P : 010-7272-7318
목동 2단지 일반상가 118호
등록번호 : 82413342

목동텔레콤
이 애 경 (루시아)
H.P: 010-3286-7604
TEL : 02) 2642-7604 FAX : 02) 2642-7606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7-10 현대파라지앙 1층 106호

공인 결혼정보사 - 초 · 재혼 · 만혼
m · j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전문 커플매니저 시스템
Tel. 1566-6205 / 02-3141-3888
H.P 010-9236-2700
대표 김 마리아

나눔 공인중개사
2643-5050 (주, 야간 가능)
박정림(엘리사벳) H.P 010-2203-1140
목동3단지 일반상가 328동 앞 하나은행 옆

온누리 공인중개사
신공웅(도미니교) 010-3253-2263
하영숙(바 올 라) 010-9671-2369
☎ 02-2649-5580
목동3단지 301동 앞 일반상가 하나은행 옆

CELLENIQUE 세레니끄 피부 관리실
20년 명품주의 코리아나가 운영하는 세레니끄 목동점
소중한 피부를 위한 고품격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의 세레니끄 목동점
개인룸, 커플룸, 다인룸 완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피부를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김광식(아오스팅) · 이은경(이레네)
부영그린2차 2층 ☎ 2645-0580

자동차의 모든 것
★ 중고차 매매
★ 신차 (국내 전 차종 및 수입차)
(주)서안모터스 이현인(바오로)
H.P. 011-241-1212

태원 공인 중개사
2648-1199, 010-9889-9930
전양숙(수산나) 백문선(토마스 빌라노바)
목동 1단지 A상가 106호
목동아파트, 한신청구, 부영, 오피스텔 전문

만 4세부터 성인까지
1:1 맞춤형 피아노 방문레슨
어드벤처피아노
성악 개인레슨, 관현악 개인레슨
(바이올린, 플룻, 첼로, 클라리넷, 오보에)
www.edu-prime.co.kr
양천.구로지사 2605-0117



- 해나리 광고안내 -
광고료 : 1호 1회 3만원 3회가 기본입니다.
광고신청 및 광고문안 : haenari0330@hanmail.net
백명애 마르가리타 011-9899-3866
계좌번호 : 외환은행 327-22-01559-1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본만셀정 25주년 회고 사진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성당



본5동 성가정 성당
Holy Family Catholic Church

